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별한 배려 아닌 권리”

‘모두를 위한이동, 우리의 목소리’ 집담회

광주시장애인복지관 등 공동 개최

광주 보행로·버스정류장 곳곳 위험

제도 개선시 장애인 참여 등 중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를 점검하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에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

따랐다.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7일 오후 2시 북

지관 내 1층 강당에서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모두를 위한 이동, 우리의 목소리’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교통약자들과 장애인 인권 운동·복지 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담회에선 ▲보행 환경 ▲버스 정류장 ▲저상 버스 ▲시각장애 ▲여성 ▲해외사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배현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동권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제도 설계의 전환과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보행 환경 발제를 맡은 김병만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파손된 보도블록, 경사로 미설치, 방향이 잘못된 점자블록 등 광주 곳곳의 보행로는 여전히 위험하다”며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고려 없이 보행 환경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버스 정류장 분야에 대해 발제한 윤형수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가는 “장애인들은 현재 버스 정류소에 진입하는 것조차 어렵다”며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어진 광주녹색당 활동가는 독일 베를린의 이동권 정책 사례인 ‘배리어프리 도시 설계’를

소개하며 “베를린은 저상버스 보급뿐 아니라 정류장 진입 안내, 음성 버튼, 시민 참여형 이동 정책까지 법과 제도로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없이 결정되는 정책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우리를 빼고 우리에게 대해 말하지 마라”는 원칙이 이동권 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광주여성민우회·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이경아·도연·이원신 활동가는 각자 맡은 분야에 대해 발언했다.

각자의 사례와 제안은 달랐지만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일반 시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은정 기자

올해 두 번째 수능 모평 ‘9월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올해 두 번째 202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가 9월3일 시행된다.

평가원은 17일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역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공동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며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되며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접수 기간은 6월20일~7월2일이고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주소지 관할 8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성적 통지표 배부일은 9월30일이다.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과 8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평가원 홈페이지(kice.re.kr), 수능 홈페이지(suneung.re.kr), EBS 홈페이지(ebsi.co.kr)에 게시한다. /연합뉴스



비 그친 뒤 산책 비가 그친 17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 푸른길공원에서 시민들이 푸르른 녹음 사이로 산책을 즐기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도교육청 ‘글로벌 전남교육 실현’ 온 힘

정책협서 기관 협업 방안 집중 논의

교육공동체 주도적 참여·실천력 강조

김 교육감 “K-교육 선도 모델 구체화”

전남도교육청이 ‘글로벌 전남교육’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1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K-교육, 전남교육에서 출발합니다’를 주제로 6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교육감과 본청 국·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교육협력관 등 6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과

현장 실행력제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도교육청이 중점 추진 중인 ▲늘봄교육 ▲2030교실 ▲전남학생교육수당 ▲교육발전특구 ▲글로벌교육 등은 지역 단위의 자율적 대응이 핵심으로, 교육정책의 성패는 교육공동체의 주도적 참여와 총출현 현장 실행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정책협의회는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학교 간 소통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교육정책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옥란 전남도교육청교육정보연구원은 “12개 직속기관은 학생·교직원·지역민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남교육 정책을 공감과 체현 중심으

로 실현하고 있다”며 독서인문교육, 학생 주도 수업, 이중언어교육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과 연계를 위한 기관별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권순용 보성교육장은 “학교 현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본청의 역할 구분, 협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는 글로벌 전남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안착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의 장이었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 도 교육정책과 현장을 잇는 협력 체계를 강화해 K-교육을 선도하는 실천 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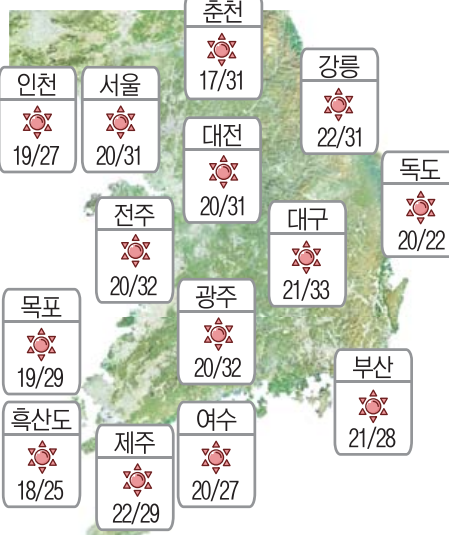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9:50 🌙달돋이 00:06 달질 11:49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20/32	장성	맑음	18/32
목포	맑음	19/29	보성	맑음	17/29
여수	맑음	20/27	함평	맑음	18/31
나주	맑음	18/32	순천	맑음	19/31
완도	맑음	19/30	영광	맑음	18/31
구례	맑음	19/32	진도	맑음	18/28
강진	맑음	18/31	흑산도	맑음	18/25
해남	맑음	18/30	고흥	맑음	17/31
광양	맑음	20/31	담양	맑음	18/32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북)	1.0-2.0	1.0-2.0
남부	면바다(남)	1.0-2.0	1.0-2.0
	앞바다	0.5-1.0	0.5-1.0
남해	면바다(동)	0.5-1.5	0.5-1.5
	면바다(서)	1.0-2.0	0.5-1.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6:55	12:19	여수	01:34	07:58	02:21
	19:13	--:--	여수	14:05	19:56	14:47

●생활정보지수

니들이 80

세 차 80

더위 조심하세요

세차하기 좋은날

빨래 70

운동 60

실외건조 좋아요

준비운동은 충분히

●주간 날씨

19일(목)	20일(금)	21일(토)
☁(21/30) 구름많음	☁(23/28) 구름비	☁(23/27) 구름비
22일(일)	23일(월)	24일(화)
☁(22/28) 구름비	☁(22/28) 구름비	☁(21/28) 구름비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 사용기한 없음 / 365일 관리 / 광주에서 20분 / 무료 안치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